

세계지방자치동향

- 한국 부산시 청년일자리 통합정보시스템: 청년부산잡스
- 일본 청년층의 지방생활 활성화를 위한 일본의 후루사토(고향) 워킹홀리데이
- 중국 중국의 정부 통합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지침
- 독일 독일 지방정부의 ESG
- 미국 미국 텍사스 주 지방자치단체의 가정위험폐기물 재사용 프로그램
(Household Hazardous Waste Reuse Program): Texas 주의 사례를 중심으로

Global Trend

2022. 11.

제40호



청년층의 지방생활 활성화를 위한 일본의 ‘후루사토(고향) 워킹홀리데이’

○ 개요

- 일본 도시지역의 젊은이들이 휴학/휴가를 이용해 지방에서 일하며 생활해보는 ‘후루사토(고향) 워킹홀리데이’ 제도를 도입(2017년)하였음
- 이는 18~30세의 젊은이가 전용 비자를 받아 1년 안팎으로 해외에서 일하며 관광하는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본떠 일본 국내에서 청년층의 지역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음
- 인구가 줄어든 지방에 체류자를 늘려 활력을 불어넣고, 만성적인 일손 부족을 해소함과 동시에 지방으로의 이주를 촉진함
- 장기 이주보다는 가볍게 참가할 수 있고, 여행만으로는 느끼기 어려운 지역의 실생활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장래적인 관계 인구의 확대를 목적으로 함

○ 추진 배경

- 일본은 본격적인 인구감소 및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지역 커뮤니티의 쇠퇴, 지역인재 부족 그리고 재정 악화 등의 문제가 표면화되고 있음
- 국토교통성의 보고서¹⁾에 따르면, 성공적인 지방창생을 위해서는 행정 중심의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다양한 주체가 지역 만들기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
- 지금까지 외부 인재와 협력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음(표 1)

| 표 1 | 2010년 이후의 주요 시책

시책	시기
지역 살리기 협력대	2009년~
지(地/知)의 거점정비사업	2013년~2015년
지(地/知)의 거점대책을 통한 지방창생추진사업(COC+사업)	2015년~2019년
후루사토 워킹홀리데이	2017년~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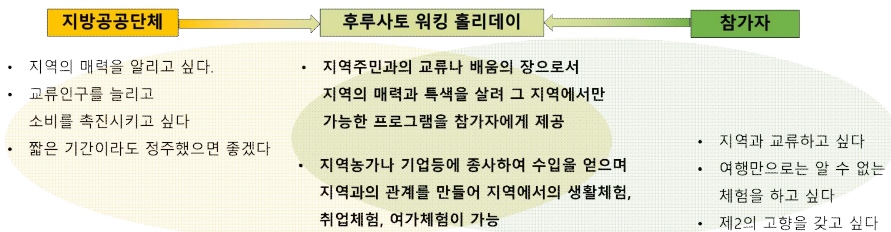
출처: 高濱 優子, 今永 典秀, ふるさとワーキングホリデーを活用した 地域創生インターンシップ, グローバルビジネスジャーナル, 2021, 7 卷, 1 号, p. 56-63

1) 국토교통성(2018), ‘이후의 공조에 의한 지역만들기 방법 검토회 정리’

- 2014년도에는 '마을/사람/일자리 창생법'의 시행으로 도쿄 일극집중을 해소하고 지방취업률 향상을 목표로 한 U턴/I턴 취업 촉진 사업이 각지에서 추진되었음
- 이와 함께 2015년도부터는 전국 42개 대학을 중심으로 '지(地)/지(知)의 거점대책을 통한 지방 창생추진사업(COC+사업)'을 시행하여 대학 진학 및 졸업 후 취직 시의 도쿄권 유출을 완화하고자 하였음
- 하지만 마을/사람/일자리 창생종합전략의 KPI 검증팀은 2017년도 지역 취업률이 당초의 목표치에 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함
- '지역 살리기 협력대'는 활동 거점이 되는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 기간 동안 지역에 거주하며 지역주민의 생활 지원 등 지역협력활동을 하면서 지방 정착을 도모하는 시책임
- 하지만 '전입신고'라는 전제조건이 장벽이 된다는 논의가 있었음
- 후루사토 워킹홀리데이는 총무성의 주도하에, 지역과의 관계 및 지역의 실생활 체험을 목적으로 2017년에 시작하여 첫째 8개 지자체(홋카이도, 후쿠시마, 효고현, 나라현, 아마구치현, 애히메현, 사가현, 쿠마모토현)가 참가하였음

○ 제도의 개요 및 목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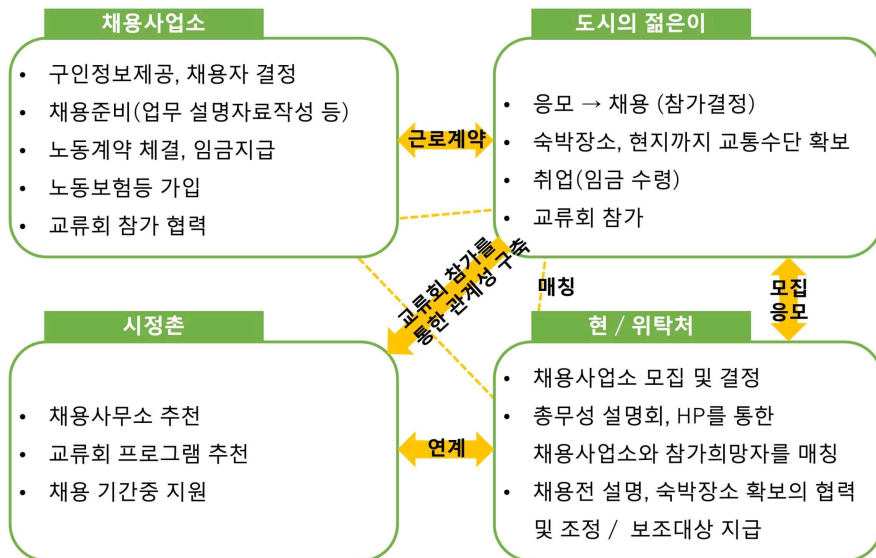
- 후루사토(고향) 워킹홀리데이는 '지역에 사람과 정보의 흐름을 창출하는 프로젝트의 하나'로, 도시에 사는 젊은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지방에서 생활하면서 일하여 수입을 얻고, 지역 주민과의 교류와 배움을 장을 통해 지방에서의 생활을 체험하는 것임
- 많은 젊은이들이 일단은 가볍게 지방에서 취업체험(인턴)을 하면서 지역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
- 그 목적은 장기적인 '정주인구'도, 단기적인 '교류인구'도 아닌 지방 혹은 지역민들과 다양하게 관계하는 '관계인구'로써, 중장기적인 미래의 이주 및 정주로 이어지게 하는 것임
- 2019년 말 기준 참가자는 약 2,500명으로 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, 취업 빙하기세대의 30대, 40대도 일부(8.5%) 참가하고 있음



〈그림 1 | 후루사토 워킹홀리데이 개요

○ 추진 체계

- 총무성은 전용 포털사이트 운영, 설명회 실시 등 홍보지원을 실시함
- 지방공공단체는 지역주민과의 교류나 배움의 장으로서 지역의 매력과 특색을 살려 그 지역에서만 가능한 프로그램을 참가자에게 제공함
- 참가자는 지역 농가나 기업 등에 종사하면서 수입을 얻으며, 지역과의 관계를 만들어 지역에서의 생활/취업/여가 체험이 가능함
- 후루사토 워킹홀리데이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특별교부세조치 : (대상경비의 상한액) 1단체당 15,000천엔+5천엔x전체 참가자의 총 체재일 수



출처: 카고시마판 후루사토 워킹홀리데이 추진사업 (<https://www.city-kirishima.jp/>)

| 그림 2 | 카고시마현의 후루사토 워킹홀리데이 실시체제

○ 실적

- 후루사토 워킹홀리데이 사업을 통해 6년간 약 3,800명(2022년 3월 기준)이 지역에서의 생활을 체험하였음
- 그중 약 90명(약 2.3%)이 지역 정주로 이어짐
- 체험자의 91%가 만족한다는 의견이었고, 그중에서도 81%는 재방문 의향이 있다고 답하는 등 체험자로부터 고평가되고 있음²⁾

2) 후루사토 워킹홀리데이 포털사이트(<https://furusato-work.jp/overview/>) (2022.11.16. 열람)

○ 오키나와현 후루사토(고향) 워킹홀리데이 사례

- 오키나와에서는 2018년도부터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시행하여 2018년도에는 50명이 참가하였음
- 고용기업, 지역에 따라 참가자의 업무 내용이나 여가 활동의 내용이 상이하여 각 지역의 선배 이주자(내비게이터)가 지역에서의 교류나 여가 활동 및 생활 전반을 서포트함
- 수도권에서의 합동 모집 설명회와 대면 상담회 그리고 WEB 상담회 등을 통해 참가자의 참가동기와 고용자의 고용환경에 맞는 '온라인 이주상담'을 진행함
- 2020년 코로나 확산 이후에는 후루사토 워킹홀리데이를 응용하여 '일하는 방식 개혁'의 이념을 적용한 '부모 아이 워케이션(Workation : Work+Vacation)'을 기획함
- 통상의 워킹홀리데이는 일에 비중을 두고 있지만, '부모 아이 워케이션'은 집안일, 육아, 일, 여가의 균형 잡힌 지역 생활이 가능하도록 함
- 참가 요건으로 원격업무가 가능한 부모, 자녀의 섬 유학에 관심이 있는 가정으로 대상자를 제한하였고, 시행 첫해인 2020년 3월에 4개 가정이 참가하였음
- 행정적으로는 '풍부한 관계인구 창출', 지역적으로는 '아이들의 소리가 넘쳐나는 지역'의 선순환을 만들

| 표 2 | 오키나와현의 모집내용 예)

기업 일람	• https://okinawa-iju-wh.jp/campany/
체제 기간	• 15일~30일간 (기업에 따라 상이)
임금	• 시급 792엔 (오키나와현 최저임금)(기업에 따라 상이)
채용인원 수	• 각 지역 1명 (기업에 따라 상이)
모집 기간	• 2021년 4월-2022년 2월경까지
대상자 조건	• 18세 이상인 자 • 오키나와현에 거주하지 않는 자 • 기간 중, 현지에 체재가능한 자(지역 이벤트, 체험투어에 참여 가능한 자)
오키나와현의 지원하는 것	• 숙박비 일부 (상한 1박 4,000엔), • 체제 지역에서의 이동 수단(필요한 경우) • 교류 이벤트, 배움의 장 제공
참가자가 부담하는 것	• 숙박비 일부(1박 4,000엔 초과분) • 체제 기간 중의 식사비 • 거주지에서 근무지까지의 왕복 교통비 • 고용보험 등 보험료

출처: 오키나와 이주의 바퀴(<https://okinawa-iju-wh.jp/outline/>)

○ 시사점

- 우리나라도 산업화 이후의 대도시 과밀 현상과 함께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해 비수도권의 많은 지역(2021년, 전국 89개 지방자치단체를 ‘인구감소지역’으로 지정³⁾)은 소멸 위기에 놓여있음
-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본의 시책 중 ‘젊은이들에게 지방에서의 직업체험과 생활 체험, 여가활동을 가능하게 지원’하는 ‘후루사토(고향) 워킹홀리데이’에 대해 소개하였음
- 후루사토 워킹홀리데이의 전신이었던 ‘지역 살리기 협력대’는 전입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을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점을 보완하여, 보름에서 한 달 정도(지역 및 기업에 따라 상이함)의 여행보다는 길지만, 이주보다는 짧은 기간 동안 지방에서의 일과 생활, 사람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고안했음
- 오키나와현의 경우, 코로나 확산 이후에는 원격업무가 가능하고 자녀를 동반한 가정 단위로 모집하는 등 각 지자체는 지역의 주산업과 실정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실시하고 있음
- 참가자의 참가동기와 고용하는 측(지역/기업/사업주)의 니즈를 알맞게 매칭하기 위해서는 선배 이주자의 내비게이터 역할, 대학교와 지역의 코디네이터 역할, 행정의 서포터 역할이 중요함

○ 참고문헌

- 연합뉴스. (2016.08.17.). 「“일하면서 지방 체험을”...일본서 ‘국내판 워킹홀리데이’ 도입. (<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160817115100009>) (2022.11.16. 열람)
- 국토교통성. (2018). 「이후의 공조에 의한 지역만들기 방법 검토회 정리」.
- 후루사토 워킹홀리데이 포털사이트(<https://furusato-work.jp/overview/>) (2022.11.16. 열람)
- 키리시마시 홈페이지(<https://www.city-kirishima.jp/>) (2022.11.16. 열람)
- 오키나와 이주의 바퀴(<https://okinawa-iju-wh.jp/outline/>) (2022.11.16. 열람)
- 小林 和彦. (2020). コロナ禍を経てオンラインで変化する地域の現場から. 「農村計画学会誌」, 39(2): 123-136.
- 高濱 優子. (2021). 今永 典秀, ふるさとワーキングホリデーを活用した 地域創生インターンシップ. 「グローバルビジネスジャーナル」, 7(1): 56-63.

김지윤 통신원

도쿄대학 도시공학전공 박사과정

3)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(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-66호, 2021.10.19)